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11:40)

순례자

발행인: 이종운

발행처: 서울 장로교회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 517-7651~5

FAX: 512-1225

93년도 교회 표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비전 2000운동 오늘로 막을 내린다.

—오늘 밤 승전 보고회 갖기로—

지난 50일간 기도와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2000년이 되기전 복음을 듣지 못한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겠다는 비전 2000운동이 오늘로 그 막을 내린다.

대신자 카드를 제출한 명단은 교구별로 나누어 교역자들의 전도 대상으로 주어졌으며 온 교회는 그 열매를 맺을 때 까지 충성스럽게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 비전2000운동 승전보고 회를 갖는다.

교회설립 2주년 기념 음악예배

—오늘밤 가브리엘 찬양대 주관—

가브리엘 찬양대(대장 김광신 장로)는 우리 교회 설립2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찬양예배시 음악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지휘자 허희철 집사와 온대원등 지난 몇개월동안 정성과 힘을 다해 찬양을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는 온전한 찬양의 모델을 보여 주겠다는 각오로 기쁨을

토하고 있다.

찬양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후 온 교회성도들이 함께 떡찬치를 벌려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우리교회 설립에 헌신적 수고를 하신 성도님들께 위로와 감사를 표하는 뜻으로 교회 앞 뜰에서 한마당 잔치로 이어지게 된다.



■ 우리교회 교역자들은 '93년도를 점검하고 '94년도 목회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11월 22일(월)

오후부터 1박 2일간 수유리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특별세미나를 갖는다.

■ 군종장교(군목) 보수교육이 오는 11월 25일 이종윤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국방대학원에서 있게 된다.



.....친지는 변하고

세월은 바뀌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목회자 세미나 수료식 성황리에

지난 11월 15일 우리교회 부설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에서 주관한 목회자세미나 4학기를 마친 목회자들이 영광스런 수료식을 갖었다.

지금까지 1808명의 목회자가 등록하여 160시간의 교육을 받은 이들은 교과를 초월하여 경향각지에서 물려온 하나님의 종들로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겠다는 각오로 이날 수료식에 참여하였다.

“지도자의 길”이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졸업식의 훈사를 대신한 원장 이종윤목사는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러시아 선교사 김바울목사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 우리교회가 준비한 푸짐한 음식을 질서있게 대접받는 목사님들의 입가엔 뜨거운 사랑에 응답하는 미소와 감사가 넘쳐 흘렀다. 답사에 나선 정경화 목사(백운교회 담임)는 서울교회 형제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국교회갱신을 위한 밑일이 될 것을 다짐하는 말로 인사를 했다.

연말연시 교회 일정표

- 11월 28일(주일) 추수감사절, 교회설립2주년 성찬식(Ⅰ, Ⅱ, Ⅲ부), 장로 안수식(찬양예배시)
- 12월 1일(수) 권사회 총회
- 3일-4일(목, 금) 연말 당회
- 5일(주일) 서리집사, 교구일꾼임명식
- 8일(수) 여전도회 총회
- 9일(목) 새가족 환영회
- 11일(토) 실업인 선교회 총회
- 12월(주일) 찬양대원 임명식(22일 호산나, 시온 임명식), 남선교회 총회
- 19일(주일)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
- 19일-26일 각부 교사 총회, 찬양대 총회
- 24일(금) 성탄전야예배 및 축제
- 25일(토) 성탄새벽예배(5시), 낮예배(11시)
- 26일(주일) 교회학교 졸업식, 특별제직회
- '94. 1월 1일 0시(토) 송구 영신예배
- 2일(주일) 성찬식, 공동의회

창세기강해



이종운 목사

생명으로 가는 길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창 3:21~4)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는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주시는 방법을 계시해 주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 받은 자리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칭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 3:7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벌거벗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가리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것은 심리적, 육신적인 필요가 있는 것 같으나 본문은 근본적으로 그 영혼을 덮어주려고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역사의 어느 한 순간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진리에 비추어 볼 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앞에 나온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나 육신의 어떤 가리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고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름받고 나온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백 번 회교회를 출입하고 천 번 주님앞에 무릎을 꿇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불행한 자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기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 무화과 나무잎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회피한 것입니다. 하나님

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린 불쌍한 아담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순간적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앞에서 도피성향이 있으나 도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잎, 인간이 만든 가장 훌륭한 옷이 있다면 선(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자신의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나와 회개할런지 모르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에베소서 2:8~9에 인간의 선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으니 인간의 선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할 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앞에 자기 선을 들고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 21절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앞에 설 수가 없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 가죽옷

가죽옷을 입었다는 말씀은 세 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우리에게 예표로 주신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주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죽음의 공포에 떨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죄에 대한 공포, 죽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인생들에게 알게 하신 후 무죄한 자가 대신 죽은 다음에야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부끄러움을 면하게 된다는, 죄를 가리우게 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양 한 마리가 죽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구약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양을 각각 한 마리씩 죽여야 했는데 그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한 가족당 한 마리의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속죄의 날에는 민족 전체를 위하여 한 마리 양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한 후 속죄의 양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속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린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피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와 오고 오는 세대에까지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양을 잡아서 피 뿌리는 제사가 하나님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구원을 이루고 있음을 본문에서 시작하여, 신약성경 요한복음 1:29에서 세 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죄를 감추려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우고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것이 인간이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죄를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나 하나님앞에서는 불충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의의 옷’으로, 십자

가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 받는 것입니다.

3. 동산에서 쫓겨남

에덴동산에서 죄 없이 살때에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땅을 갈게 되었고 고통을 당해야 되며 그 다음에는 흠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딤후 5:6) 악을 좋아하는 자는 이미 뿌리가 뽑힌 식물과 같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끊겼다면 그 이유는 죄때문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과 줄이 끊어졌으면 산자가 아니고 죽은자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했어도 그것은 선이 아니고 악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다 헛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을 그 자리에서 멸절 시키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아무도 살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때에만 비로소 가죽옷을 입을 수 있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길, 그 나라를 향하여 행할 수 있을터이니 이와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종운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6시(성경교실)

극동방송(HLXX 1188KHz) 매주 금요일 오전 9시~30분(나의 길길 다가도록)

아세아방송(HLAX 1566KHz) 매 주 일 오전 8시~30분(주일설교),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50분(재방송)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를 수료하면서

최규석 목사(행신제일교회)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이 주최한 목회자 세미나 2년 과정을 수료하게 되어 기쁨과 감사를 감출 수 없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과 서울장로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강사로 수고해 주시어 굳어졌던 마음에 새도전을 주신 이준윤 목사님과 여러 강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지난 2년동안 참으로 많은 지식과 목회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감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현대사회는 주고받는 것(give and take)이 특징인데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에서는 적게 받고 많이 주는 것이 특징이어서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큰신 은혜가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목회자 세미나는 배움과 갱신에 그 취지가 있기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많은 목회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참여하기를 원한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김증복 권사

그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나가서 봉사하던 목회자 세미나가 종강을 하고 더구나 4학기를 마치고 수료식까지 갖게 되어 마음이 흐뭇하기만 하다.

목회자 세미나가 열리는 동안은 월요일 아침마다 조바심을 치며 모든 봉사자들이 YMCA로 발길을 옮기곤 하였는데 어드레 4학기를 마치게 된 것이다.

월요일 새벽마다 김밥을 만들던 권사님들과 할 일 많은 젊은이들이 생업을 뒤로 하고 달려와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건강하라고,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받을 때는 오히려 송구스럽기만 했다.

마지막날까지 강당에 자리가 모자라 계속 의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며 저토록 사명감을 가진 주의 종들이 있는 한 한국교회의 앞날은 밝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갱신을 위한 중들의 사역위에



이 간절한 기도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사진으로 본 목회자 세미나 종강 및 수료식



한 학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뒤), 이 목사님과 봉사자들(앞)



찬양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다음학기에 뵙겠습니다.



수료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순례자칼럼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영렬 집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라는 질문이 새삼스러운 것은 성경에 나타난 교회설립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 오늘의 현상들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을 보여야 할 대교회요 전통교회 일수록 그 정도는 심하여 내분과 편협으로 사람높이기에 혈안이 되어있어 극도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다른 의견이나 변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순종을 자신의 편의적 교회 치리로 돌려 이미 정해놓은 교회헌법도 질서도 모두가 자기 중심적 기준이 되고 말았다. 자기 자신의 편의에 따라 노회에 가입도 하고 탈퇴도 하며 그 교회의 비중에 따라 노회 자체가 오고 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규모나 사회적 영향력의 비중에 따라 그 교회가 원하는 것이 곧 교회 치리의 기준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자신의 경우는 조금도 양보가 없음은 물론 성직자들의 모임일수록 목소리는 더욱 요란하다는 사회적 풍자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자체를 두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절대성을 내세워 어떠한 경우라도 입을 다물고 하라는 것이나 하면 복 받는다는 식의 교회 생활이 아니고서는 오늘의 신앙 생활을 견대내기 어렵도록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 가는듯한 느낌마저 든다.

표면으로는 가장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듯한 제스처와 함께 기도 내용의 구절구절마다 회개와 사랑과 희생의 언어는 다 동원하는 듯한 느낌이지만 돌아서면 물밑 대화를 통해 들려오는 어처구니 없는 거짓, 질투와 시기, 가식과 위선등이 난무하고 급기야는 성직자들까지도 자기들만이 옳다는 그래서 시비를 가리려고 법정으로 가는 고발, 고소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정신을 꺼리낌없이 외칠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오늘의 세태를 보면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이전보다 무엇이 더 나아졌느냐는 당시 비판받던 종교 지도자들의 조소가 들려오지 않을까 두려울 뿐이다. 물론 불완전한 인간들의 모임이요 죄인들의 집단이기에 교회도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의 교회는 오히려 순수함으로 찾아오는 초신자들이 성직자들과 지도자들간의 갈등과 추태 그리고 자기 중심적 경직된 태도가, 그래서 나타나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한계를 느끼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실천의 교회를 찾아 나서는 것이 현대인의 방향인지도 모른다.

유치부 특별찬양예배

유치부(부장: 유윤진 장로)는 지난 주일(14일) 2층 예배실에서 성도들과 함께 특별 찬양예배로 드렸다.

유치부 학생들은 오랫동안 준비한 찬양과 율동, 성경암송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이 날 예배는 최병호 목사가 목사 안수 후 첫번째 설교와 축도를 하여 더욱 귀한 시간이 되었다.



기도해야지요

스킨시는 심장장애를 갖고 있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서울을 뿐만아니라 음식물을 섭취하기에도 어려워 기동조차 힘든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분이다.

그러나 권사님은 창립 2주년을 앞두고 12시간 연속기도회를 감당하기위해 먼거리에서부터 달려 오곤 했다.

“몸도 불편하신데 좀 쉬시지요” 하는 말에 권사님께서는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서울 장로교회를 어떻게 세워주시고 이민족과 세계를 위해 얼마나 큰 사명을 주셨는데 나같은 사람도 기도해야지요.”

참으로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소리이다. 기도하는데, 거리도, 건강도, 또 어떠한 조건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예배당을 짓게 하소서.
2. 창립 2주년을 감사로 맞이하게 하소서.
3. 연말의 모든 행사들을 은혜중에 마치게 하소서.

■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오전 9:00
	II 오전 11:00
	III 오후 2:00
찬 양 예 배	오후 5:00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금 요 기도회	오후 12: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 교회약도

